

전북도, '2036 하계 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

유효 투표수 61표 중 49표 획득
인프라 재할용... 5兆로 유치 가능
대구시 등 4명 지자체단체장 연대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서울특별시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가운데 여야 단체장의 지원사격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유효 투표수 61표(무효표 1표) 중 49표를 획득해 11표를 얻은 서울시를 따돌리고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뽑혔다. 전북도는 경기장 등 주요 시설을 친환경으로 구성하고, 광주와 충남, 충북, 대구 등 지방 도시의 체육 시설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분산 개최하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또한 비수도권 연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 등 인프라를 적



유승민(왼쪽) 대한체육회 회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대회 개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극 재할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다른 시·도의 경기장을 활용해 약 5조원으로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프리젠테이션(PT)에 직접 나섰다 PT 말미에는 2분30초 가량으로 편집된 영상을 틀었다. 영상은 흥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연대를

선언한 4명의 지자체단체장들의 '전주 올림픽 유치 지지' 영상이었다. 이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역전을 위해 준비한 '히든카드'였다.

흥준표 대구광역시장 "전주하계 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역회합 상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주) 유치될 경우 대구에서 육상경기를 개최할 수

있어 기대된다. 전북과 영호남이 힘을 합쳐서 2036 전주 하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꼭 (전주)유치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전주하계올림픽 지역과 스포츠 인프라 공유를 통해 국내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인재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믿는다"며 "2036 하계 올림픽이 전주에 유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주 올림픽 유치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현장에서는 PT 과정에서 전북에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여야 2명의 단체장의 지지 메시지 이후 흐름을 뒀다는 전언이다.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최원학 도시개발국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지역의 한 복지시설을 방문해 행복자전거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했다.

경주시

장기 방치 자전거 150여대 수거

경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도로와 공공장소, 아파트 등지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 150여 대를 수거했다.

이 중 상태가 양호한 40여 대는 수리해 '경주시 행복자전거'로 재탄생시킨 후 지역 아동복지시설 3곳과 지역아동센터 4곳에 이달 중으로 기증을 완료했다.

행복자전거는 자원 순환과 친환경 실천의 일환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수리해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부산시

청년 원스톱 취업지원 사업

부산 부산진구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원스톱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취업 준비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청년들이 직장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공간인 '청년마루'를 일자리 카페로 새롭게 단장하고 전문 취업상담사를 배치해 취업과 관련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신안군

연휴 전후 연가 사용문화 정착

전남 신안군은 연휴 전후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조직 내 성과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연휴 전후 연가 활용 문화 정착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번 3·1절의 경우 연가를 활용하면 주말 포함 최대 4일, 5월 어린이날의 경우 5일을 쉴 수 있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해남군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재)해남문화관광재단은 해남을 방문하는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해남쓰리Go 먹Go! 자Go! 즐기Go!'를 진행한다.

'해남쓰리Go'는 해남군을 방문해 1박 이상 체류하는 개별관광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시즌별 참여자를 각각 모집한다.

1박 2일 이상 해남에 방문하여 여행하는 최소 2인 이상의 관외 관광객으로, 체류 기간 동안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한 뒤 소비금액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첫 국립립대학 '국립경국대학교' 출범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오는 10일 출범식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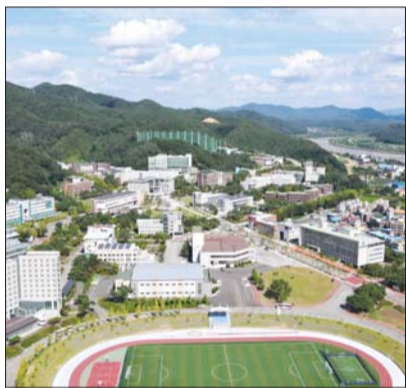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한 국립경국대학교가 이달 새롭게 출범한다.

국립경국대학교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23년 5월 30일 통합을 위한 첫 합의를 이룬 이후 글로벌 30대학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해 6월 7일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이 확정됐다.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으로 국립대학이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 상징물은 국립안동대학교 전통을 계승해 교목으로 은행나무, 교조로 학, 교색으로 노랑과 파랑을 선정했다.



국립경국대학교

교가는 기존 국립안동대학교 교가에서 '안동대'를 '경국대'로 가사만 변경해 사용한다.

국립경국대학교 행정조직은 안동 캠퍼스에 대학 본부를 두고 4층 1국 1센터, 1추진단으로 구성돼 주요 행정 및 학사 업무를 총괄한다.

예전캠퍼스는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수요대학으로 운영된다.

행정지원본부 내 통합지원실을 신설해 공공기관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은 10일 오후 3시 개최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 타임스, '광양시 저출산 극복 정책' 주목

100만원 지원금 등 소개

낮은 출산율과 이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광양시의 출산 장려 및 육아 정책이 외신에 소개돼 눈길을 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최근 웹 기사를 통해 '한국이 멸종 출산율 위기를 역전시킨 방법' 등에 대한 기획성 기사를 실었다. 광양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부부의 일상과 출산 계획, 시의 지원 등에 대해 정인화 광양시장의 인터뷰를 곁들여 알기 쉽게 풀었다.

더 타임스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주택, 무료 의료 및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초래했으며, 인센티브가 15%까지 상승하는 점을 강조했다.

광양시가 인구 15만 명을 유지하면서 30만 자족도시로 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 장려 및 아이 잘 키우는 도시로 향해야 한다는 시정 방침이 적중한 것이다.

중소 공업도시로 세련미와 문화적 소양을 키우기는 다소 어렵더라도 부부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무료 의료, 보조금, 무료 진료소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A 씨의 경우 가임성 및 선천적 결함에 대한 검사, 태아기 관리, 20만원(110파운드)의 교통비, 임신 확인 시 100만원(550파운드)의 지원금과 아기 장난감, 유축기 대여가 가능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저출산과 결혼 장려 정책이 없었다면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도 담담하게 소개됐다.

광양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기업과 협력한 직원 자녀 보육서비스가 1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또 광양시의 출산 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인구가 늘어 15만 4000명이 이르렀다. 작년에는 880쌍의 커플이 결혼해 2023년 대비 26% 증가했고, 941명의 아기가 태어나 13% 증가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의성군,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25종 100대 임대 농기계 갖춰

경북 의성군은 도내 최대 규모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날 개소식을 가진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는 중부 산간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영농편의를 위해 조성했다.

총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 1675㎡, 연면적 1354㎡(농기계보관창고 998㎡, 사무실 및 교육장 324㎡,

세척장 32㎡) 규모로 콤팩트 등 25종 100대의 임대 농기계를 갖췄다.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로 권역별 모든 지역 농업인들 접근성이 용이해져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절감은 물론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의성(경북)=김준한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 중점

전남 나주시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高) 경제위기로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운영태 시장 주재로 35개 사업으로 이뤄진 '2025년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올 상반기까지 신속한 완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나주시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은 국정 혼란과 내수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생계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0억원 규모의 4대 분야 3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은 지난 달 말 기준 16개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19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해 침체한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나주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예산 신속 집행' 부문에서도 1월 말 현재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